

# ‘섬’의 시각에서 본 인류세: 새로운 복원력 개념을 통한 대안의 모색

백영경\*

## 【요약】

인류세(Anthropocene)이란 인간의 과학적, 산업적, 경제적 활동이 지구에 지울 수 없는 정도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된 새로운 지질시대의 이름이다. 인류세는 과학적 개념인 동시에 새로운 세계관이자 지식생산의 패러다임으로서, 지구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융합적 접근을 추구해 왔고, 학술적으로는 인간중심적 사회과학 연구와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에 기반한 근대성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면서 관계론적 전환(relational turn)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애초에 자연과학 분야에서 출발했지만, 학문적 경계를 넘어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구의 위기를 진단하고 극복하려는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류세 위기의 중요한 징후이자 현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섬의 시각에서 재난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는 복원력의 의미를 다시 묻고자 한다. 근대적 사고에서 섬은 고립되고, 후진적이며, 의존적이고, 취약하다고 이해되어 왔지만, 섬의 인류세 논의에서는 대안적 사고와 실천의 공간으로 섬을 바라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섬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인류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주제어】 인류세, 섬, 관계론적 전환, 복원력, 재난

---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R1A5A7025409).

<https://doi.org/10.34162/hefins.2022..28.004>

## I. 서론

최근 들어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석하는 틀로서 인류세Anthropocene담론이 급격하게 부상해 왔다. 인류세Anthropocene이란 인간의 과학적, 산업적, 경제적 활동이 지구에 지울 수 없는 정도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된 새로운 지질시대의 이름이다. 인류세는 과학적 개념인 동시에 새로운 세계관이자 지식생산의 패러다임으로서, 지구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융합적 접근을 추구해 왔고, 학술적으로는 인간중심적 사회과학 연구와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에 기반한 근대성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면서 관계론적 전환relational turn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인류세 담론은 단순한 지질시대의 이름을 넘어서 현대 사회를 비판하는 패러다임으로 부상해 왔고, 학계 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이끌어내는 비판 담론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지구에 미친 지질학적 흔적이라는 좁은 의미를 넘어서 현재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진단하고 극복하려는 비평적 개입이자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sup>1)</sup> 인류세 개념이 재난 대응의 개념으로서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학문 분야를 아우를 뿐만 아니라 학계의 논의를 넘어 대중적 관심을 아우를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sup>2)</sup> 또한 인류세 담론이 기존의 지속가능성 담론에서 사용하지 않던 지구 역사, 행성적 위기, 티핑 포인트나 파국과 같은 개념들을 사용하면서 그로부터 파생되는 정동 효과를 통해 위기에 대한 다양한 실천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sup>3)</sup> 이러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

1) Hamilton (2017), pp. 30-33.

2) Lorimer (2017). pp. 117-42.

주류적인 인류세 연구는 인류세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질학에서 출발한 개념인 만큼 땅을 중심으로 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인류세를 상상하는 방식 역시 주로 땅, 지층, 흔적, 축적 등 토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인류세 담론에서 섬이나 해양의 문제가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섬은 기후위기와 쓰레기, 해수면 상승이 가져올 것이라 예견되는 종말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다. 해수 산성화, 해수 온도 상승, 생물다양성 감소, 해수면 상승, 바다 쓰레기 등 섬은 인류세를 체감할 수 있는 현상으로서 묘사되고 있다. 기존에 섬에 대해 씩씩했던 낙후와 고립의 이미지에 더해서 이제 기후위기의 상징이자 인류세의 알레고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sup>4)</sup>

하지만 섬과 바다를 피해의 상징으로만 보는 것은 우선 인류세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낼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물론, 실제로 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저항의 주체들과 새로운 변화를 볼 수 없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다. 섬을 근대의 폭력의 현장이나 육지나 대륙과 비교하여 고립과 낙후, 야만의 공간으로만 보는 시각은, 섬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인류세적 현실 자체가 식민주의와 불평등한 세계화의 결과라는 것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섬의 역사적 경험을 보지 않고는 인류세적인 현실을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태평양 지역의 섬들의 경우를 보아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탈식민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으로서 이 지역의 인류세는 군사기지와 핵실험, 환금작물 중심의 농업, 불평등한 세계화의 결과였다. 태평양 지역의 섬들은 환경오염과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존재로서 인류세 위기의 상징이 되어 왔다. 동시에 많은 연구자들은 섬의 토착지식이나 생활 방식을 배움으로써 생태 복원력(resilience)을 키워 인류세 위기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현재 섬이 가진

---

3) 최명애, 박범순 (2019), pp. 7-41.

4) DeLoughery (2019) 참조.

복원력의 힘이 섬이 처한 불평등한 역사적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고서는 제대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인류세를 극복하기 위한 섬의 복원력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개발을 반대하고 화석연료의 채굴이나 운송을 반대하는 중요한 환경 투쟁에 토착민들이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는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섬은 인류세의 징후이자 동시에 저항의 현장이라는 이해 위에서 섬의 시각에서 인류세를 보는 논의를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후 섬의 인류세 논의에서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복원력의 의미를 다시 물음으로써 대안적 미래를 모색하는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복원력은 인류세라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개념이자 섬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으로 취급되고 있다. 하지만 섬을 고립되고, 후진적이며, 의존적이고, 취약하다고 보는 근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이러한 복원력을 성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섬의 인류세 논의를 가능하게 한 관계론적 전회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서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맥락을 포함할 방법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복원력을 다시 볼 수 있을 때라야만 인류세라는 재난을 극복할 실마리도 찾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 II. 인류세와 ‘섬’의 시각

최근 그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인류세Anthropocene 담론은 현생 인류의 활동이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의 상태에 돌이키기 어려울만큼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sup>5)</sup> 지질시대 구분법에

5) 1980년대에 처음 등장한 인류세라는 용어를 대중적으로 알린 것은 2000년 무렵부터 시작된 네덜란드의 대기과학자이자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파울 크뤼첸Paul Crutzen 교수의 활동이었다. 그는 2009년부터 ‘인류세 워킹 그룹’Anthropocene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신생대新生代, Cenozoic era 제4기에 속하는 홀로세Holocene epoch이다. 공룡의 시대였던 중생대가 약 1억8000만 년 지속되었고, 그 이전의 고생대는 약 3억3000만 년 간 이어져 왔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현생 인류의 역사가 속해 있는 신생대는 고작 6600만 전에 시작했을 뿐이고, 신생대 안에서도 제 4기의 시간은 258만에 불과하다. 홀로세는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1만 년 전에 시작했으니, 지구의 전체 역사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바로 그 1만 년 사이에 인간이 남긴 자취는 지질층에까지 영구적 흔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 인간이 해 온 농업과 도로, 항만, 댐 공사를 비롯한 대규모 토목 사업 등은 엄청난 퇴적층을 유실시켰다. 이러한 인간 활동의 침식력은 바다, 바람, 강 등 자연이 가진 침식력의 10배 이상이었다고 추정된다. 대기층에 미친 영향도 커서, 현재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 외에도 방사능의 증가도 중요한 지표로 등장했다. 1945년 최초의 원자폭탄이 투하된 이래 지구 곳곳에서 핵실험이 이루어진 결과로 발생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흔적들은 10만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 뿐 아니라 체르노빌 발전소 폭발사고를 비롯하여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까지 포함하여 방사능 물질의 누적은 현재진행형으로 만드는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다. 썩어서 없어지지 않는 플라스틱이 퇴적되고 있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종종의 멸종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해양의 산성화로 해양 생태계가 붕괴되는 한편 해수면은 상승하고 있고, 강물을 포함한 담수가 부족해지는 등, 인류의 활동은 인류가 서식해 온 지구 환경의 균형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상황이

---

Working Group, AWG을 출범시켜 공식적인 연구와 논의를 이어왔다. 아직까지 지질 연대 구분을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국제층서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n Stratigraphy, ICS) 와 국제지질학연합(International Union of Geological Sciences, IUGS)은 인류세를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질학이 정치화되는 것에 대한 경계도 있고, 층서학에서 1만년이라는 시기는 매우 짧은 시기이기 때문에 홀로세를 서둘러 마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인류가 대기와 해양, 지질층 속에서 비가역적인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된 것이다. 따라서 현생 인류의 활동의 결과가 지질층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길 것이 확실해지므로, 지금의 시대를 홀로세와 구별되는 하나의 독립된 시대로 봐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가 인류세이다. 앞서 나열한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인류세의 영향은 임박한 파국에 가까우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감염병위기, 생태위기, 사회재생산의 위기의 동시적이면서도 복합적으로 출현은 인류세가 드러나는 하나의 양상일 뿐이라는 것이다.<sup>6)</sup>

인류세 논의는 이러한 지질학적 논의에서 출발했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변화를 발생시킨 현대 문명이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되었고, 현재의 대중적인 영향력 역시 인류세 담론이 단지 학계 논의로 머무르지 않고, 기후위기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할 수 있는 담론과 실천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인류세를 사회비평으로 접근하는 담론과 실천들은 지금의 위기를 초래한 바탕에 자연과 인간의 이분법에 기초한 근대적 사고가 존재한다고 보면서, 자연을 인간의 이용대상이자 자원으로만 취급한 결과 인류세의 복합위기를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한다.<sup>7)</sup> 실제 인류세 담론이라고 통칭하고 있지만 인류세 담론은 매우 다양한 성향을 띠고 있으며, 그 가운데는 자연에 대한 더 나은 관리를 주장하면서 인간 중심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지 않는 흐름, 나아가 인간의 자연 지배력이 정점에 이른 시대로 인류세를 찬양하는 흐름까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을 인류세 담론의 주류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현재와 같이 대중적 영향력을 확대하게 된 데는 현재 인간의 삶의 방식이 초래하고 있는 결과가 파국적일 수도 있다는 실감이 존재하고,<sup>8)</sup> 이러한 위기감이 인류세 담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인류세 담론은 인간과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인간중심의 문명에 대한 비판을 꾸준

6) Ellis (2018), p. 15.

7) Latour (2017). pp. 35-49.

8) 최명애, 박범순 (2019), pp. 7-41.

히 제기해 왔으며, 특히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전세계적 범유행이라는 상황에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비인간적인 요소들이 인간의 삶과 절대 무관할 수 없으며, 인간-자연 관계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성찰 역시 인류세 담론과 함께 확대되고 있다.<sup>9)</sup>

한편 인류세 논의의 근본적인 전제들을 공유하면서도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논의들도 존재한다. 스웨덴의 학자인 안드레아스 말름과 알프 호른보리는 인류세라는 용어가 현재의 위기를 호모 사피엔스 종 전체의 책임이자 공동으로 경험하는 위기로 보이게 만든다고 비판하면서,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할 주체를 자본으로 명시하여 ‘자본세’Capitalocene라는 용어를 인류세 대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류의 다수는 인류세를 초래한 풍요에서 배제되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인류세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생태위기의 주범이자 불평등의 근원인 자본주의에 면죄부를 주면서 현재 위기의 책임을 인류 전체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sup>10)</sup>

다나 해러웨이 역시 인류세라는 용어보다 자본세라는 용어를 선호하면서 여기에 더해 자본주의 체제의 남성중심성을 비판함으로써 기존 인류세 논의의 남성중심적 한계를 비판한다.<sup>11)</sup> 해러웨이 역시 현재 생태계의 파괴는 인류라는 종 전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자본주의 체제와 관련된 문제이며, 해러웨이가 보는 자본주의는 그 핵심에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적인 성격을 가진다. 해러웨이는 한 손에 화석연료를 들고 태우는 백인남성을 현재 자본주의 체제의 상징으로 보면서, 현재의 백인남성중심의 인류세를 넘어서 인간과 다른 존재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 즉 슬루세Chthulucene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슬루Chthulu는 인류세의 인류와 대비되는 존재로서, 인간의 통제에 간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여러 행위들을 통해 인간-비인간 존재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구성하는 지하의 거대한 힘 자체를 의미한다.

9) 김준수, 이정랑 (2020), pp. 51-84; 김환석 (2022), pp. 1-3.

10) 말름 (2020), p. 141; Malm and Hornberg (2014), pp. 62-69.

11) 도나 해러웨이, 김상민 (2019), pp. 162-173.

다시 말해 그는 지금의 인류세를 만들어낸 책임을 자본주의, 그 중에서도 화석연료 중심 세계에서 권력을 가지고 살아온 백인남성에게 물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연을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만 보면서 성장과 이윤 추구를 앞세워 인간과 비인간 모두의 존재 가능성을 파괴해 온 자본주의의의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류세가 인류 전체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위기의 시대를 맞아 현재까지 제시된 세계의 상을 근본적으로 되짚어보면서,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 세계를 파괴하지 않는 방식의 관계를 상상하고 비인간 존재를 포함한 다양한 존재들과 관계를 형성해 가야한다는 주장은 물론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들이 배제되어 있으며, 어떤 장소에서 새로운 상상을 전개하고 실천을 만들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문제적인 것은 인류세가 가져온 문제를 비판하면서도 인류세 시대에 절멸에 가까운 위기를 이미 경험해온 토착민(the indigenous)<sup>12)</sup>의 시각에 충분히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토착민의 시각에 주목하지 않는다고 해서 토착민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앞서 섬의 시각이 없다고 해서 섬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없는

---

12) 정착자(the settler)나 침략자들이 오기 전부터 특정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원주민(the native 또는 aborigine), 토착민(the indigenous), 선주민(First Nation) 등이 있는데, 용어마다 의미가 조금씩 다르지만 필자마다 쓰는 의미가 다르기도 하여 그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혼용되어 쓰이기도 하며, 지역에 따라 달리 쓰이기도 한다. 토착민(the indigenous)라는 용어는 상대적으로 일상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식민주의의 경험 속에서 나온 정치적 성격이 강한 용어로서, 종종 특정한 장소와의 연결성, 그 장소를 통한 조상들과의 연속성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토착민을 혈통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실제로 식민지배자들의 시각이며, 현실의 토착민 범주는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며 정치의식에 영향을 받는 과정 속에 있다. 한국어에서는 토착민보다는 원주민이라는 용어가 가장 익숙하게 사용되지만, 이 글에서는 토착성의 문제가 혈통이 아니며 토착민이라는 용어를 스스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식민지배 역사에 대한 자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토착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것은 아니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세 위기 담론 속에서 토착민은 여러 차원에서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다. 우선 토착민은 피해자의 상징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토착민들이 거주해온 지역이 기후위기에 더 심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류세에서 이야기하는 해수면 상승이라던가, 산불 피해, 산림의 축소, 극지방 온도 상승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등으로 이미 사람의 거주가 불가능해졌거나 급격한 기후의 변화로 인해 이제껏 이어오던 생계의 방식이 계속 유지되기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들이 바로 토착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그러다 보니 토착민들은 과거 낙후의 상징으로 취급받아왔듯이 이제는 기후난민을 상징하는 얼굴이자, 위기에 처한 자연과 등치되는 존재로서 기후위기를 알리는 이미지로 소비되는 면이 크다.

반면 인류세 극복 방안을 찾으려는 필자들은 토착민들과 그들이 가진 토착지식이 인류세라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복원력(resilience)의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기도 한다.<sup>13)</sup> 인류가 처한 사회·환경 위기의 뿌리를 인간 사회와 자연을 분리한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서 찾으면서, 그러한 이분법적 세계관을 넘어선 존재로서 토착민들에게 주목하고 ‘자연의 일부이자 자연에 깃들여 사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지각하여 자본주의적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수단으로서 토착민들이 가진 토착지식이나 토착적 세계관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토착민들의 삶이 인류세 위기 속에서 위협받고 있는 양상에 주목하고, 이들이 가진 지식이 인류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보게 된 상황은 근대를 진보로만 보는 시각에 비해서 진일보한 것임에 틀림 없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토착민들의 권리나 투쟁에 주목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이에 따라 탈식민(decolonialization) 입장을 가지고 토착학(the indigenous studies)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 중 일부는 인류세 담론 현재 세계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연의 착취와 파괴, 이성애 중심적인 남성지배체제는 식민지배의 역사에 대한 이해 없이는 청산될 수

---

13) 설병수 (2021), pp. 29-64.

없다고 주장한다. 식민지배체제의 청산 없이 인류세 문제의 해결도 어려울 것이라 주장한다.<sup>14)</sup>

이러한 토착민의 시각에서 나오는 인류세 담론에 대한 비판적 참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 가운데 하나가 섬의 인류세 Anthropocene Island 담론이다. 엘리자베스 M. 드루거리 DeLoughery는 카리브해와 태평양 제도의 토착민들이 거대한 식민지 유산과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와 어떻게 씨름하는지를 추적하면서, 제국주의의 역사와 기후위기의 파국의 현상으로서 섬에 주목한다.<sup>15)</sup> 그러나 그가 단지 피해자로서의 섬과 토착민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근대적 사고에서 섬은 흔히 낙후되고 고립된 지역으로 간주되었고, 실제로도 이로 인해 육지 중심적 정책에서 많은 소외와 종속을 경험해 왔으며 제국의 지배하에 놓이기도 했다. 하지만 기후위기라는 존재론적 위기 속에서 섬의 토착민들과 작가들은 생존만을 위한 분투를 넘어 새로운 시각과 실천들을 만들어내는 창의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실제 현실의 섬은 기후위기 이전부터 존재해 온 많은 역사적 재난과 자연재해를 견디면서 살아남은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공간이자, 복원력을 보여주는 공간이다.<sup>16)</sup> ‘인간 이상의 존재들’ More-Than-Human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생존해 온 섬의 경험은 복합위기를 가져온 근대적 사유를 넘어설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이 섬의 인류세를 이야기하는 논자들의 주장이다.<sup>17)</sup> 이들은 근대적인 인간중심주의와 육지중심주의를 탈피하여 인간 이상의 존재들과의 공존을 추구하고, 이는 생태커먼즈를 만들어가는 ‘사회운동 너머의 사회전환’ More-Than-Social-Movement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본다.<sup>18)</sup> 이들

14) Davis and Todd (2017), pp. 761-780.

15) DeLoughery (2019), p. 18.

16) Chandler & Coaffee (2016).

17) Pugh (2018), pp. 93-110; Sheller (2020).

18) Puig de la Bellacasa (2017); Papadopoulos (2018).

은 또한 이제까지의 주류적인 인류세 연구가 땅을 중심으로 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sup>19)</sup> 이들은 그 원인 중 하나가 인류세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질학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고 보며, 실제로 우리가 인류세를 상상하는 방식은 주로 땅, 지층, 흔적, 축적 등 토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육지 중심적 사고가 인류세 담론 자체에 기인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섬을 육지 중심적 정책에서 자원으로 서만 활용하는 배제적 포섭의 역사는 매우 길다고도 본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단지 섬과 해양의 문제가 인류세 논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단순히 다루어지는 문제만이라면 기존의 인류세 담론에서 섬이나 해양의 문제가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기후위기와 쓰레기, 해수면 상승이 가져올 것이라 예견되는 종말의 상징으로 섬은 꾸준히 등장하고 있으며, 해수 산성화, 해수온도 상승, 생물다양성 감소, 해수면 상승, 바다 쓰레기 등 섬은 인류세를 체감할 수 있는 현장으로서 묘사되고 있다.<sup>20)</sup> 문제는 토착민을 다룬다고 해서 피해의 상징으로만 본다면 제대로 다룬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기존의 토착민을 야만의 상징으로 보는 오래된 담론의 수명을 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듯이, 섬과 바다를 피해의 상징으로만 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사실이다. 섬의 피해에만 주목한다면 인류세에 대한 새로운 개입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저항의 주체들과 새로운 변화를 볼 수 없게 된다. 섬을 근대적 폭력의 현장, 혹은 육지나 대륙과 비교할 때 고립되고 낙후한 야만의 공간으로 보는 시각은, 섬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인류세적 현실 자체가 식민주의와 불평등한 세계화의 결과라

19) Chandler & Pugh (2020), pp. 65-72; Pugh & Chandler (2021).

20)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2019). Mapping Exposure to Sea Level Rise: Tonga, Samoa, Vanuatu and Papua New Guinea. Available at:

<https://unfccc.int/climate-action/momentum-for-change/ict-solutions/mapping-exposure-to-sea-level-rise>.

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다.<sup>21)</sup>

따라서 이제까지 인류세 담론이 발전시켜온 문화와 자연의 이분법이나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는 관계론적 전환Relational Turn을 이어받되, 이를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섬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섬을 인류세 시대의 저항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로 사고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시각으로서 섬의 인류세를 본다는 것은 섬의 역사적·사회구조적 변동을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주의 경우 현재 제2공항이나 해군기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은 태평양을 둘러싼 국제적 역학구조, 국가폭력의 낙인의 기억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으며, 전 제주의 관광지화나 공장식 축산 및 양식장 문제에서 드러나는 개발의 열망 역시 육지의 산업에 종속되어 있는 제주 경제를 도외시하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sup>22)</sup> 제주를 넘어서 태평양 지역 섬들의 경우에도 현재 인류세적인 현실을 초래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진정한 탈식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를 비롯한 태평양 섬들의 인류세적 현실 역시 군사기지와 핵실험, 환금작물 중심의 농업, 불평등한 세계화의 결과를 빼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sup>23)</sup>

복원력의 문제에서도 단지 복원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듯이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제대로된 대응이라고 할 수가 없다. 태평양 지역의 섬들은 환경오염과 해수면 상승으로 위기에 처한 인류세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많은 연구자들은 섬의 토착지식이나 생활 방식을 배움으로써 복원성을 길러서 인류세 위기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왔다.<sup>24)</sup> 전 세계적으로 개발을 반대하고 화석연료의 채굴이나 운송에 저항하는 중요한 환경 투쟁에 토착민들이 중요한 행위자

---

21) Kauanui (2016).

22) 최현 외 (2016).

23) Rowe (2014), pp. 134-150; Tsing (2015); Vine (2015).

24) Pugh (2016), pp. 1040-1059.

로 등장한다는 사실, 25) 이 투쟁에서 제주와 태평양 섬의 주민들 역시 중요한 주체였으며, 이 과정에서 섬이 가진 토착지식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할 때 인류세 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을 섬의 복원력에서 찾는 일에 근거가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존재론적 전회의 의미나 복원력 개념 모두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맥락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우선 존재론적 전회를 섬의 구체적인 맥락에서 발전시킨다면 어떤 방향이 가능할지를 모색해보고, 그 이후에 복원력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려고 한다.

### III. 관계론적 전회의 확장

앞서 언급했듯이 인류세 연구는 인간의 활동이 지구에 미친 파괴적인 영향에 주목함으로써 현재 기후위기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문화와 자연의 이분법과 인간 비인간의 이분법을 넘어서실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는 관계론적 전환Relational Turn을 주도해 왔다.26)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야 한다는 요구는 포스트휴머니즘의 경향으로도 나타나며,27) 신유물론에 입각한 연구경향들이 최근 주목을 받으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개입으로서 인류세 연구가 다양한 이론적 지향을 담아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28) 그러나 인류세의 원인을 자본주의나 식민주의와 같은 특정한 생산체제나 사회체제에서 찾는 연구들은 여전히 주류라고 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인류세가 주도하고 있는 관계론적인 전환에 대해서도 현실 세계의 구조적 모순이나 불평등, 권력 관계를 비판하기보다는 공통의 위기를 강조함으로써 인류세적 현실을 변화

---

25) Perez (2021).

26) Haraway (2016) 참조.

27) 차태서 (2021), pp. 31-65.

28) Baldacchino (2018), pp. 217-228.

시키고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를 찾기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sup>29)</sup>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관계론적인 전환의 흐름을 이어 인간 이상의 존재들에 대한 관심을 이어 받되, 섬의 시각에 기초하여 사회과학의 비판적 관점을 경유하는 세 가지 영역으로 관계론적 전환을 확장을 제안함으로써 인류세 담론이 가질 수 있는 비판과 실천적 개입의 힘을 확장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섬의 시각에서 나올 수 있는 해양적 전회oceanic turn이 필요하다.<sup>30)</sup> 비판적 태평양학 연구자들이 주도해온 해양적 전회는 이제까지 고립과 낙후의 상징으로서 문제적인 공간이었던 섬을 회복탄력적인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공간, 다른 존재론과 인식론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으로 보고자 하는 시각이다. 섬은 근대/식민 체제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면서도 일정한 외부성을 가지며, 지구화로 드러나는 자본주의적 논리와 군사기지로 대변되는 국민국가의 영토적 논리라는 양자가 중첩되는 흥미로운 공간이자 그 모순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오토 헤임Otto Heim은 섬의 시각을 현대 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속성과 이에 대한 저항에 연결시킨다. 그는 섬이라는 일견 고립되고 버려진 듯 보이는 장소들이 실은 현대 제국주의가 가진 자본의 논리와 영토의 논리에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섬의 논리’Logic of Island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sup>31)</sup> 태평양 지역의 섬들은 실제로 이 지역에서 오래 진행되어온 상품화·군사화·사유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삶을 꾸려왔으며, 위기가 삶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는 낙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낙관은 인간과 비인간이라는 이분법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단지 기후위기 이전의 삶으로의 복귀라는 식의 복원성에 대한 대안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결국 섬의 시각이라고 하지만, 이는 섬에서 이루어져 온 여러 가지 대안적인 운동들, 즉 새로운

29) Moore (2013).

30) Hau'ofa (1994); Hayward (2012), pp. 1-11; Hessler (2018).

31) Heim (2017), pp. 914-929.

경제적·사회적 관계를 실험해 온 섬의 운동들에 주목할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sup>32)</sup>

두 번째는 탈식민적 전회decolonial turn로서, 인류세 극복을 위한 관계론적 전회는 실제로 근대 이후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을 담을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확장의 방향이다. 현재 인류세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생태 위기의 원인을 진단함에 있어서 제주와 태평양의 섬들이 겪어온 인종주의와 식민주의를 떼어놓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sup>33)</sup>. 이는 관계론적인 전회를 발전시키되 현실의 구조적인 불평등과 권력 관계가 생태계의 파괴와 사회적 배제로 발현해 온 양상을 민감하게 분석하고자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제주와 태평양 섬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의 파괴와 오염, 군사주의의 확장이나 관광지화, 플랜테이션 농업과 어업은 모두 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난 종속의 역사와 떼어서 볼 수 없다.<sup>34)</sup> 탈식민적 전환은 제주와 태평양의 섬들이 경험한 구체적인 현실 역사에 주목하되, 이 역사와 섬의 문화 및 생태가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입장을 반영한다. 실제로 비판적 태평양학 연구자들은 식민 역사뿐 아니라 식민 역사에 대한 침묵 자체가 현재 생태 위기를 가져온 원인이라고 비판하기도 하며,<sup>35)</sup> 근대적인 이분법적 사고 자체가 식민주의와 무관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인간과 비인간, 문화와 자연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섬을 낙후된 공간으로 보고 식민주의적 지배를 실행해온 역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식민주의의 역사와 함께, 현재까지도 섬을 낙후된 공간으로 보고 과거의 시간성 속에서 배치하는 시각이 주민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비판하면서, 이를 미래의 회복탄력적인 미래의 기획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존재론적인 전회가 구체적인 역사 비판과 더욱 깊이 결합해야

32) Perez (2015), pp. 619-624.

33) 백영경 (2018), pp. 22-54.

34) Perez (2021), pp. 429-433.

35) Cavanagh&Veracini (2017).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sup>36)</sup>

마지막으로 관계로적 전회가 섬의 시각과 만나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움직임으로는 변혁적 전회(transformative turn)를 꼽을 수 있다. 변혁적 전회 개념은 관계론적인 전환이 가진 잠재력을 현실의 변화로 이어가겠다는 의식적인 노력의 표현이다. 현재 인류세 위기에 직면한 섬의 현실은 단순히 인류가 인간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겠다는 언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며, 그 변혁적 노력은 기존의 사회 운동을 넘어 인간 이상의 존재를 포괄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현실에서도 섬들은 자본주의적 발전의 주변부로서 침체와 소외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많은 새로운 실천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며, 이는 현실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존재론과 인식론적 근거들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 IV. 복원력과 불투명할 권리

복원력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전 상태로의 복귀를 전제로 한다. 지역사회의 복원력은 닦쳐오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신속한 의사 결정, 안정성 유지 및 대처, 신속한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그런데 복원력에 대해 이런 식의 기존 접근을 취할 때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 중 하나는 인류세에 등장하는 기후위기와 같이 위협과 위험이 미리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대응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기를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sup>37)</sup> 일반적으로 탄성을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원상으로 돌아가는데 초점을 맞추는 복원력 개념의 목표는 안정적인 상태이며, 이미 존재하고

36) Pugh (2018), pp. 93-110.

37) Chnadler & Pugh (2020), pp. 65-72.



있는 사회를 돌아가야할 상황으로 전제하는 경향이 있다. 재난이나 분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시각에서 중요하게 간주되는 요소는 빠름 그 자체에 있다. 위기를 빨라 탐지하여 빠르게 대응하고, 빠르게 원상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한 외부 원조도 지역사회가 위기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여기에 빠른 속도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sup>38)</sup>

그런데 여기서 던져봐야 할 질문이 과연 인류세라는 위기가 지역사회로 하여금 투명한 원칙에 입각해서 위기에 자동적으로 빠르게 대응하는 것으로 막아낼 수 있는 종류의 위기냐 하는 점이다. 섬의 복원력, 공동체의 복원성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지만, 실제로 기후위기에 수반되는 지금의 위험은 미리 예측하기도 어렵고 지역사회 단위만으로 대응할 성격의 것도 아니며, 위협이 닥치기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복원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무엇에 대한 반작용으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식으로 상상되어서도 곤란하며, 더구나 복원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위가 과연 기존의 행정적 단위나 작은 공동체인 지도 의심스러운 것이다.

섬의 인류세 논자들은 여기서 섬이 가지고 있는 복원성이란 자율적인 단위로서 닥쳐오는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sup>39)</sup> 이러한 시각은 오히려 섬을 고립되고 낙후된 존재, 외부의 원조 없이는 위기에 대응할 수 없는 존재로서 보는 서구중심적인 사고를 강화할 뿐이며, 그보다는 섬이 가지고 있는 육지와는 다른 관계성을 강조하는 시각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양적 전회의 중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통가 학자 에펠로 하우오파(Epelo Hau’ofa)는 <우리 섬들의 바다 Our Sea of Islands> 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제까지 관용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표현으로 ‘바다의 섬들’을

38) Becken, S. & Khazai, B. (2017), pp. 96-104.

39) Sheller (2020); Chandler and Pugh (2020), pp. 65-72.

‘섬들의 바다’로 바꿀 것을 제창한 바 있다.<sup>40)</sup> 텅 빈 바다 속에 띄엄띄엄 섬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 자체를 섬들 사이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생명의 원천으로 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섬이 가진 다른 연결성을 복원력의 원천으로 삼을 때에야만 섬을 낙후된 존재로 보지 않으면서 섬이 이제까지 제국주의의 식민화 역사와 전쟁과 오염 등의 위기를 딛고 생존해온 힘을 제대로 재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는 결국 섬과 육지,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서 새로운 연결성을 모색하는 관계론적인 전회의 문제의식을 복원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확장하여 재해석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섬의 인류세 논자들이 철학적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에두아르 글리상이다. 글리상은 『관계의 시학』 *Poetics of Relation*라는 저술에서 복원력에 대한 탈식민지적 접근에서 쟁점이 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sup>41)</sup> 그는 관계성에 대한 서구적 사고가 환원주의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글리상은 서구적 사고가 관계성을 논하는 순간에도 창조의 순간과 창조주의 개입을 상상하는 서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보편성이나 일반화 혹은 초월적 전체성에 도전하는 지식으로서 시학의 방법을 택하는 대안적 접근법을 내세운다. 주체는 더 이상 관계를 관찰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구체적인 맥락과 실체 속에서 자신을 세계의 일부로 만드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이 과정의 맥락적 특수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sup>42)</sup>

그는 일반적으로 복원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투명성과 자율성 대신에 “불투명할 권리” *the right to opacity*를 주장한다.<sup>43)</sup> 글리상이 이야기하는 불투명성에 대한 권리는 지역사회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고 반드시 고정되거나 자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모르는 상태로 두고, 결정할 수 없는 것은 결정할 수 없는 대로 두면서,

40) Hau'Ofa (1994), pp. 148-161.

41) Glissant (1997).

42) Glissant (1997), p. 140.

43) Glissant (1997), p. 190.

모든 것에 대응할 수 있고 대응해야 하며, 그 방식을 미리 알 수 있다는 부당한 전제에 맞서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sup>44)</sup> 실제로 섬의 연결성을 무시한 행정적 지역 단위의 대응은 섬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관계의 망을 활용하기 보다는 고립되도록 하는 경향이 있으며, 새롭게 닥쳐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새롭게 열린 대응을 추구하기보다는 외부에서 제시된 동질적이고 고정적인 대응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 섬의 정체성은 실제로 유동적이며, 닥친 문제에 따라 재정의를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복원은 그러한 과정과 새로운 관계 형성의 가능성을 용인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불투명할 권리가 중요한 것은 기존의 복원력 개념이 전제하고 있는 질서가 실제로 섬을 낙후되고 고립된 존재로 만든 제국주의적 근대의 질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인류세 담론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까지 복구해야 할 원상으로 간주되어 온 세계가 실제로는 인류가 유발한 재앙이기도 하며, 지금의 세계는 점점 더 예측할 수 없고 불확실성으로 가득차게 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세계에서 주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감응력을 복원력의 주요 요소로 보는 글리상과 섬의 인류세 논자들의 주장의 의미는 단순히 섬의 특수한 이해관계라는 맥락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45)</sup> 물론 인류세와 기후위기라는 큰 위협 앞에서 과연 섬의 시각이 주는 개방성과 새로운 연결성, 혹은 불확실성 안고 갈 수 있는 능력이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그러나 복원력을 빠르게 원상 복구할 수 있는 자율적 주체의 능력으로 보는 접근은 인류세를 낳은 근대적 사고의 일부임이 분명하다고 할 때, 과정을 통해 세계를 새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복원력을 이해하는 섬의 인류세 논자들의 접근이 장점을 가진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인다. 알려진 것보다는 미지의 것, 고정된 것보다는 미지의 것에 주의를

---

44) Pugh and Chandler (2021).

45) Latour (2014), pp. 1-18.

기울이면서 과거의 관습과 존재 방식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체의 기존 '상식'을 넘어 창의성을 발휘할 소지가 조금은 더 커 보이기 때문이다.

## V. 결론을 대신하여

현재 제주를 포함한 태평양과 그 너머의 섬들은 복합위기의 시대를 맞아 다양한 사회문제를 경험하고 있지만 실제 역사 속의 섬은 재난과 결핍을 극복하면서 생존해 온 복원력의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위기의 현장으로서만이 아니라 회복탄력적 미래를 상상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섬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인류세 연구는 육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면서 섬의 문제를 인류세의 징후로서만 다루었을 뿐 섬이 줄 수 있는 통찰을 체계화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섬의 경험이 보여주는 복원력을 강조하는 경우에조차 그 복원력 개념이 기존의 근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섬의 복원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섬의 복원성이 가지는 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섬과 육지의 관계에서 섬을 종속적인 지위에 놓고, 바다로 고립되었으며 도시에 비해 낙후된 지역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섬이 가지는 다른 종류의 연결성,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 이미 맺어온 다양한 관계를 재평가할 수 있는 관계론적 전회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섬을 육지의 종속된 존재로 보는 시각은 단순히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역사적 경험의 축적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류세에 대한 섬의 시각을 확보하고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 이상으로 관계론적 전회를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영역, 나아가 현실 변혁적인 영역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그 방향을 해양적 전회, 탈식민적 전회, 변혁적 전회 세 영역으로 나누어 탐색해보고자 했으며, 이러한 맥락적 접근 위에서 섬의 복원성도 현실적 함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인류세 섬 연구가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사회에서 사회과학적 접근을 통해 복합위기 시대에 섬이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직면하게 될 현실에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찾아보기 어렵다.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공학적 설계나 관행적인 해결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인류세 연구가 강조하듯 인간중심의 시각에서 탈피하는 것에 더하여 섬의 인류세 연구는 성장주의와 채굴주의가 결합된 육지중심의 시각, 본토 중심의 시각에서도 벗어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본 논문의 의의는 그러한 시도를 진전시키고자 했다는 것에 있으며, 차후 경험 연구들을 통해서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준수, 이정량 (2020), 「팬데믹과 인류세 자연: 사회적 거리두기와 ‘인간 너머’의 생명정치」, 『공간과 사회』, 30(4): 51-84.
- 김환석 (2022), 「가이아 이론과 인류세」, 『과학기술학연구』, 22(1): 1-3.
- 도나 해러웨이, 김상민 (2019), 「인류세, 자본세, 대농장세, 툴루세」, 『문화과학』, 97: 162-173.
- 두아라 프라센징, 김인섭 (2014), 「인류세(人類世)에서 아시아 연구의 의제」, 『아시아 아리뷰』, 4(1): 15-23.
- 박주식 (2016), 「크레올의 시학: 에두아르 글리상과 카리브 군도의 탈식민 문화 정체성」, 『비평과이론』, 21(3): 175-203.
- 백영경 (2018), 「태평양 지역 섬의 군사화와 탈식민, 그리고 커먼즈」, 『탐라문화』, 58: 93-122.
- 이광석(2019), 「‘인류세’ 논의를 둘러싼 쟁점과 테크노-생태학적 전망」, 『문화과학』, 97: 22-54.
- 설병수 (2021), 「인류세 시대의 아프리카 토착 지식에 관한 재고」, 『한국아프리카학회지』, 64: 29-64.
- 차태서 (2021), 「포스트휴먼 시대 행성 정치학의 모색 : 코로나 19/기후변화 비상사태와 인류세의 정치」, 『국제정치연구』, 24(4): 31-65.
- 최명애·박범순 (2019), 「인류세 연구와 한국 환경사회학 : 새로운 질문들」, 『환경사회학연구 ECO』, 23(2): 7-41.
- 최현 외 (2016), 『공동자원의 섬 제주 2: 지역 공공성의 새로운 지평』, 진인진.
- 하세봉 (2016), 「새로운 상상의 가능성 : 해양사 연구」, 『역사와경계』, (101): 101-131.
- 홍선기 (2020), 「인류세의 기후변화와 도서해양지역의 전통생태지식」, 『도서문화』, 55: 31-56.
- 황진태·정현주 (2015), 「페미니스트 공간연구에 다중스케일적 접근 접목하기: 여성 운동연구를 중심으로」, 『대학지리학회지』, 50(1): 123 - 139쪽.
- 말름 (2020), 우석영, 장석준 역 (2021), 『코로나, 기후, 오래된 비상사태』, 마농지.
- 엘리스, 얼 (2018), 김용진·박범순 역 (2021), 『인류세』, 서울: 교유서가.

해밀턴, 클리브 (2017), 정서진 역(2014), 『인류세』, 서울: 이상북스.

Alaimo, S. (2016), *Exposed: Environmental Politics & Pleasures in Posthuman Times*,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Baldacchino, G. (2018), “Seizing history: development and non-climate change in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Climate Change Strategies and Management*, 10(2): 217 - 228.

Becken, S., & Khazai, B. (2017). “Resilience, tourism and disasters.” *Tourism and resilience*, 96-104.

Benwell, R. (2011), “The canaries in the coalmine: small states as climate change champions,” *The Round Table*, 100(413): 199 - 211.

Cavanagh, Edward, and Lorenzo Veracini, eds. (2017). *The Routledge handbook of the history of settler colonialism*, New York: Routledge.

Chandler, D., Coaffee, J. (2016), *The Routledge Handbook of International Resilience*, Abingdon: Routledge.

Chandler, D., Pugh, J. (2020), “Islands of relationality and resilience: the shifting stakes of the Anthropocene”, *Area*, 52(1): 65 - 72.

Davis, Heather and Zoe Todd. (2017), "On the Importance of a Date, or Decolonizing the Anthropocene." *ACME: An International E-Journal for Critical Geographies*, 16(4): 761-780.

DeLoughrey, EM (2010), “Heavy waters: waste and Atlantic modernity”, *PMLA*, 125(3): 703 - 712.

\_\_\_\_\_ (2019), *Allegories of the Anthropocene*,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Edmond, RS., Smith, V. (2006), *Islands in History and Representation*, London: Routledge.

Giraud, EH. (2019), *What Comes After Entanglement?: Activism, Anthropocentrism, and an Ethics of Exclusion*,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Glissant, É. (1997), *Poetics of Relation*,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Gilroy, Paul (1993), *The black Atlantic: Modernity and double consciousnes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Haraway, DJ. (2016), *Staying with the Trouble: Making Kin in the Chthulucene*,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Hau'Ofa, E. (1994). “Our sea of islands.”, *The Contemporary Pacific*, 6(1): 148-161.

- \_\_\_\_\_ (2008), *We Are the Ocean*, Hawaii: University of Hawai'i Press.
- Hayward, P. (2012), "Aquapelagos and aquapelagic assemblages", *Shima: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to Island Cultures*, 6(1): 1 - 11.
- Heim, Otto (2017), "Island Logic and the Decolonization of the Pacific.", *Interventions*, 19(7): 914-929.
- Hessler, S. (2018), *Tidalectics: Imagining an Oceanic Worldview Through Art and Science*, Cambridge, MA: MIT Press.
- Kauanui, J. Kēhaulani (2015), "Imperial ocean: The Pacific as a critical site for American studies.", *American Quarterly*, 67(3).
- Koch, F., Kabisch, S., & Krellenberg, K. (2018). "A transformative turn towards sustainability in the context of urban-related studies? A systematic review from 1957 to 2016." *Sustainability*, 10(1): 58.
- Latour, Bruno. (2017), *Anthropology at the time of the Anthropocene: a personal view of what is to be studied*, NY: Palgrave Macmillan.
- \_\_\_\_\_ (2014). "Agency at the Time of the Anthropocene". *New literary history*, 45(1): 1-18.
- Lorimer, J. (2017). "The Anthro-scene: A guide for the perplexed". *Social Studies of Science*, 47(1): 117-142.
- Malm, Andreas, and Alf Hornborg. (2014), "The geology of mankind? A critique of the Anthropocene narrative." *The Anthropocene Review*, 1(1): 62-69.
- Martínez-San Miguel, Y., & Stephens, M. (Eds.). (2020). *Contemporary Archipelagic Thinking: Towards New Comparative Methodologies and Disciplinary Formations*, U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Papadopoulos, D. (2011). "Alter-ontologies: Towards a constituent politics in technoscience.", *Social studies of science*, 41(2); 177-201.
- Papadopoulos, D. (2018). *Experimental practice: Technoscience, alterontologies, and more-than-social movements*, NC: Duke University Press.
- Perez, Craig Santos (2015), "Transterritorial currents and the imperial terripelago.", *American Quarterly*, 67(3): 619-624.
- \_\_\_\_\_ (2021). "Thinking (and feeling) with Anthropocene (Pacific) islands.", *Dialogues in Human Geography*, 11(3): 429-433.
- Peters, K., Steinberg, P. (2019), "The ocean in excess: towards a more-than-wet ontology", *Dialogues in Human Geography*, 9(3): 293 - 307.



- Pugh, J. (2016), “The relational turn in island geographies: bringing together island, sea and ship relations and the case of the Landship.”, *Social & Cultural Geography*, 17(8): 1040 - 1059.
- \_\_\_\_\_ (2018), “Relationality and island studies in the Anthropocene”, *Island Studies Journal*, 13(1): 93 - 110.
- Pugh, J, Chandler, D. (2021), *Anthropocene Islands: Entangled Worlds*, London: University of Westminster Press.
- Puig de la Bellacasa, (2017). *Matters of care: Speculative ethics in more than human worlds*, Minneapolis: U of Minnesota Press.
- Rowe, John Carlos (2014), *Transpacific Studies and the Cultures of US Imperialism*, Transpacific Studies: Framing an Emerging Field. Hoskins and Nguyen.
- Sheller, M. (2020), *Island Futures: Caribbean Survival in the Anthropocene*,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Tsing, AL. (2015), *The Mushroom at the End of the World: On the Possibility of Life in Capitalist Rui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homas, A. C. (2015), “Indigenous more-than-humanisms: relational ethics with the Hurunui River in Aotearoa New Zealand.”, *Social & Cultural Geography*, 16(8): 974-990.
- Vine, David (2015), *Base nation: How US military bases abroad harm America and the world*, NY: Metropolitan Books.
- Kauanui (2016), “A structure, not an event”,  
<http://csalateral.org/issue/5-1/forum-alt-humanities-settler-colonialism-enduring-indigeneity-kauanui/>. (검색일: 2022. 03. 06.)
- Moore, Jason. (2013), “Anthropocene, Capitalocene and the myth of industrialization II. World-Ecological Imaginations: Power and Production in the Web of Life”,  
<https://jasonwmoore.wordpress.com/tag/ecological-crisis/> (검색일: 2022. 03. 06.)
-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2019), “Mapping Exposure to Sea Level Rise: Tonga, Samoa, Vanuatu and Papua New Guinea. Available at:”,  
<https://unfccc.int/climate-action/momentum-for-change/ict-solutions/mapping-exposure-to-sea-level-rise>. (검색일: 2022. 03. 06.)

**【Abstract】**

**Anthropocene Islands: An Alternative Thinking of Resilience and Future**

Paik, Young-Gyung

Anthropocene is the name of a new geological era proposed to reflect the phenomenon that human scientific, industrial, and economic activities leave indelible traces on Earth. Anthropocene has been a scientific concept, a new worldview and a paradigm for knowledge production, pursuing a new convergent approach to the Earth and humans, and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relational turn, academically calling for fundamental revision on human-centered social science research and modernity itself. Although it originally started in the field of natural science, it is emerging as a paradigm of "disaster response" to diagnose and overcome the Earth's crisis in various fields such as humanities, social sciences, and arts.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question the meaning of resilience that is necessary for disaster respons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sland that is emerging as an important sign and site of the anthropological crisis. In modernist thinking, the island has been understood to be isolated, backward, dependent, and vulnerable, but in the prospective of the Anthropocene Island, the island is viewed as a space for alternative thinking and practice. This paper seeks to find a clue to overcome the Anthropocene crisis through this new approach to the island.

**【Keywords】** anthropocene, island, relational turn, resilience, disaster

논문 투고일: 2022. 04. 08

심사 완료일: 2022. 04. 21

게재 확정일: 2022. 04. 21